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시공 품질검사, 비정기점검 전환

서울시

특별관리필요한 현장 지정·감독
건설기술심의위 전문인력풀 활용

서울시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통해 실시하는 시공 품질 검사를 주 1회 상시 점검에서 비정기 체계로 전환 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을 기준 공사 분야별로 3개반을 편성해 정기적으로 순환 점검하던 것에서 특별 지도 관리가 필요 한 현장을 지정·감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서울시는 건설 공사장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과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꾸려 운영해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부·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기관(공사·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공사비(도급비) 20억원 이상인 현장이다.

점검 내용은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및 품질관리 상태 확인 ▲동 바리, 흙막이 가시설 적정 시공 등 안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2019년 공사 현장 점검 결과〉

구분	점검		지적사항(건)			비고 (별점부과 통보)
	연인원	계	안전	품질	기타	
2019년	224명	506	274	172	60	(1건 (2개업체, 2명))

전관리 여부 ▲해빙기, 풍수해 대비 공사장 관리 적정성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피드백 등이다.

시는 작년 2~12월 서울시 공공 공사 현장 192개소 중 42곳(본부·사업소 25개소, 자치구 5개소, 시 투자기관 12개소)을 점검해 총 50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안전관리 미흡은 274건, 품질관리 불량은 172건, 기타는 60건이었다. 시는 1건(2개 업체, 2명)에 대해 별점 부과를 통보했다.

시는 “건설기술심의, 계약금액 조정, 신기술 점검 등 주요 업무 외에 매주 외부전문가와 협동점검을 수행, 업무량 과다로 직원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 안전어사대, 감사위원회, 중앙정부 등 점검기관의 수시 점검으로 공사 관계자 등 현장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정비사업 모니터링·전문가 투입 “과열경쟁 끝”

서울시 지원반, 규정위반여부 확인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 지원
적기 투입방식으로 효과 극대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과열 정비사업장에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반을 투입한다. 또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실을 도모하고자 입찰단계별로 변호사·건축사와 같은 전문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7일 상시·선제적 모니터링과 전문가 파견 등을 빠대로 하는 시공사 선정 과정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입찰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열 조짐을 보이는 사업장에

적으로 살핀다. 그동안 민원을 통해 과열 사실 확인 후 지원반을 꾸리는 수동적·후발적 대응에서 벗어나 전문가(변호사, 건축기술자 등)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선제적으로 구성해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시는 모니터링과 지원반 운영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필요 시 합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입찰 전 과정에 변호사나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조합의 건설사 입찰제안서 검토를 돋기로 했다. 자치구나 조합이 요청하면 시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지원한다. 전문가는 조합과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에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혈액수급난 해소 위해 서울시 직원들 팔 걷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17일 오전 서울광장의 대한적십자사 헌혈 버스에서 헌혈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할 수 있다. 헌혈은 대한적십자사의 대형 헌혈버스 4대를 통해 진행된다.

시는 헌혈 현장에 발열 감지 카메라

와 손 세정제를 비치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최소화한다.

/김현정 기자



입 굳게 다문 박원순 서울시장 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 상황실에서 열린 ‘제18차 코로나19 종합대책

/연합뉴스

서울시, 코로나19 방역 안전 ‘클린존’ 확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시설을 소독한 후 환경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가 미검출된 곳을 ‘클린존’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마트 공덕점에 처음으로 클린존 마크를 부착한 데 이어 객차, 역사, 호텔, 백화점 등 확진환자 이용시설 7개소를 방역·환경조사 안정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클린존은 ▲확진환자 방문시설로

방역소독 완료하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해소된 곳 ▲확진환자 방문지와 무관한 시민 다중이용시설 중 자율적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일련은 말이다. 시는 “시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확진환자 이용시설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존재여부를 확인·공개함으로써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안전성 확보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광운대 역세권개발 협상 막바지… 내년 착공

복합적기능 갖춘 동북권 신경제거점
광운대역과 월계동 있는 도로 신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이미지. /서울시

서울 광운대 역세권 내 15만m² 규모 물류부지를 주거, 업무, 판매, 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동북권 신 경제거점으로 조성하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개발 계획 확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토지 소유자인 코레일은 광운대 역세권 물류부지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1차 협상조정협의회를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상조정협의회는 사전협상 전반을 종결하고 조정하는 협상기구다. 협상의제 선정, 공공·민간 간 이해 교환과 중재, 사안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합의 가능한 대안 도출 등을 주관한다. 공공, 민간, 외부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철도로 단절된 광운대역과 월계동을 잇는 도로를 신설하고, 문화·체육시설, 창업지원센터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만들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전문인력 2331명 투입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동주민센터’(찾동) 소속 방문간호사 877명과 복지플래너 2331명을 선별 진료소와 보건소 등에 투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찾동 방문간호사와 구청 공무원들은 지난달 말부터 3주간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나 한옥 게스

트하우스 등 소규모 관광숙박업소 총 1403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최근 14일 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중국인 투숙객은 총 494명이었고, 이중 유증상자는 없었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자치구별 선별진료소, 비상방역 콜센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투입돼 관련 안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